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25호 채택 5주년 기념

5년 전, 전 세계는 UNCRC 일반논평 제25호 채택을 통해 아동에게 약속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널리 비준된 인권조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명시된 권리가 디지털 환경에서도 전면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터넷 이용자 세 명 중 한 명은 아동이며, 디지털 기술은 교실에서 놀이터까지, 처음 친구를 사귀는 것부터 스스로를 이해하는 과정까지 아동의 삶 전반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UNCRC 일반논평 제25호는 모든 아동이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온라인에서도 동일한 권리와 기회를 가진다는 글로벌 합의를 반영합니다. 이는 아동의 권리가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디지털 세계의 사후적 고려사항이 아니라 그 토대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합니다.

이후 의미 있는 진전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대륙에서 다자지역국가 차원의 기관들이 연령에 적합한 설계 기준(age-appropriate design standards)을 법제화하기 시작했으며, 기술 기업들이 '설계 및 기본값(by design and default)' 단계에서부터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많은 아동은 여전히 그들의 고유한 권리, 필요,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술 기업들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콘텐츠(content), 접촉(contact), 행위(conduct), 계약(contract) 위험을 체계적으로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를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러한 상업적 착취는 인공지능(AI), 에듀테크(EdTech), 기타 신기술의 급속한 확산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UNCRC 일반논평 제25호에 명시된 기준의 이행을 재확인하는 것은 전 세계적 지지와 유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약속을 토대로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 권리

보호를 강화할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 정부, 규제기관, 입법기관에 촉구합니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 설계 및 기본값 단계에서부터 권리를 존중하고 연령에 적합하도록 보장하는 책임을 기업에 분명히 묻기 바랍니다. UNCRC 일반논평 제25호는 명확합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기술 기업에 있습니다. 자발적 약속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가는 기업이 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기업은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식별하고 완화하며,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내재화해야 합니다.

UNCRC 일반논평 제25호 이행 5년은 연령에 적합한 설계를 내재화하는 것이 아동의 디지털 경험에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개선을 가져온다는 확고한 근거를 축적해 왔습니다. 글로벌 프레임워크는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국제적 모범사례는 그 실행을 위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치적 의지입니다. 우리는 아동에게 약속한 디지털 세계, 즉 아동을 착취하는 세계가 아니라 보호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세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각국 정부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 1) 18세 미만 모든 아동을 보호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
- 2) 아동이 이용하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디지털 공간에 보호 기준을 적용할 것
- 3)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고려할 것
- 4) 연령에 적합한 디지털 경험을 보장하기 위한 연령확인 체계를 마련할 것
- 5) 아동권리영향평가를 의무화할 것
- 6) 개인정보보호와 안전을 설계 및 기본설정 단계부터 적용할 것
- 7) 이미 확인된 위험을 초래하는 설계·운영을 금지할 것
- 8) 이용약관과 권리구제 절차를 아동이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9) 기업의 책무를 법적으로 규정할 것
- 10) 감독 체계와 실효성 있는 집행 체계 구축할 것